# 심장혈관영상의학회 2009 – 3월 뉴스레터

발행인: 최연현　　편집인: 고성민, 박은아

## 1. 특집기사 및 이 달의 활동

### 1) 미국 연수를 다녀와서

분당 서울대 병원 영상의학과 최상일

2008년 2월부터 2009년까지 미국 볼티모어에 위치한 Johns Hopkins Univ에 연수를 다녀왔다. 이곳을 연수지로 택한 이유는 Toshiba사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320MDCT가 설치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생활은 몸담고 있는 병원이 개원이래로 늘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나로서는, 처음에는 연구에만 1년을 전념할 수 있다는 현실만으로도 가슴벅차고 설레이기만 했다. 더구나 전공의 시절부터 심장관련논문을 읽을 때 마다 심장 MRI분야에 있어 꾸준히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해 왔던 lab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팀의 일원으로 1년간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기쁘기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꿈도 잠시, 실제 미국에 도착하여 보니 지난 3년간 너무 많은 동물실험이 진행되었기에 당분간 동물실험은 안하고 논문작성에만 몰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약간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곳의 P.I.인 Dr. Lardo는 Ph.D 출신으로서 심장질환과 관련된 동물실험에만 전념하는 매우 온화한 사람이다. 예전에는 MRI를 이용한 cardiac function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였으나, 최근 MDCT의 발달과 함께 이를 이용한 myocardial perfusion and viability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area-detector의 개념을 도입한 320 MDCT의 장점을 이용하여 stress perfusion CT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작년에 분당에서 열린 symposium 및 작년과 금년모두 ASCI에 초청연자로서 활약중인 Dr. Rich도 이곳 lab에서 fellow를 하는 동안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환자에서 perfusion과 관련된 data를 모아 dedicated software를 사용하여 정량분석이 진행 중으로서, Toshiba의 clinical scientist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의 협의 및 software의 개발에 적극 지원을 하는 모습이 매우 부럽기만 했다.

연수 시작 후 몇 개월이 지나 본격적인 동물실험주제에 대하여 Dr Lardo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나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cardiac function and perfusion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마침내 이곳의 주된 연구주제중의 하나였던 Cardiac dyssynchrony의 MDCT와 MRI를 이용한 평가에 있어, resynchronization 치료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여러 번의 연구팀의 회의도 가졌으며 이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대가중의 하나인 Dr Kass에게 개인과외도 받는 호사도 누렸지만, 너무나 일의 진행이 늦어지면서 마침내는 귀국할 때까지 열심히 실험 protocol만 변경하다가 결국 본 실험은 구경도 못하고 돌아오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 다행히 의과대학 학생시절부터 수련의, 전공의 생활을 같이 하며 심장동물실험에도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울산대병원의 최성훈선생이 같은 lab으로 연수를 오게 되어, 실험을 대신 진행하여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연수 도중 ASCI Special Issue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Editor-in-Chief이신 최연현 회장님께서 최신 CT동향에 대한 review article을 Johns Hopkins연구진들과 함께 작성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셨다. 사실 원고마감은 11월말이었지만 일반적으로 RSNA에서 새로운 version의 기계가 출시되는 관계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우여곡절 끝에 이를 마무리하여 오는 4월에 출간예정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일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인 Karl이 다양한 의견개진과 도움을 주었다. 그는 lab의 고참 fellow로 외과 출신답게 동물실험에도 능숙하고 또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활달한 성격이어서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젊은 연구자들을 소개시켜주기도 했다. 재미있었던 점은 비록 cardiology소속의 lab이긴 하지만, 1년간 머물렀던 동안 1달을 공유했던 장혁재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research fellow가 영상의학과 (3명)이었다. 특히 일본 Mie Univ에서 와있었던 Dr Kakuya는 Dr Sakuma의 제자로서 매우 active하게 논문을 쓰는 radiologist로 약 5개월간 같은 책상을 공유하면서 학문적인 토론을 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기도 하였다.

뭐니뭐니해도 이곳 lab의 실질적인 책임자라면 그 유명한 Dr Lima 일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전공의 시절부터 cardiac MRI가 너무나도 재미있었고 또 동물실험 및 논문작성을 하다 보니, 이분의 논문을 읽지 않고서는 또는 인용하지 않고서는 연구나 논문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작년 11월에 cardiac MDCT로는 처음으로 NEJM에 Core 64에 대한 결과를 책임저자로서 발표하였던 것은 심영회원이라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lab의 망년회가 열렸던 작년 12월 말에 이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20명에 가까운 lab의 사람들, 너무나도 풍족한 연구비와 장비들…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하지만 Johns Hopkins의 staff들의 연봉이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때는 쬐끔 부럽지 않기도 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무엇보다도 1년간의 미국연수를 통하여 얻은 것은 의미있는 훌륭한 연구 및 논문 출간에 있어 이를 어떻게 design하고 진행하는가에 대한 좀더 큰 시야를 얻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국내의 연구현실이 과거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졌다고 하지만, Johns Hopkins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센터들과 경쟁하며 뛰어난 연구결과들을 지속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idea,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teamwork (물론 연구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 하나만으로 한국의 연구원들 그리고 CT실이나 MRI실의 일반직원들이 박봉 또는 거의 무보수로 엄청 고생을 하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내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와 같은 부단한 노력을 통한 연구기반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연수 내내 평소 성격이 매우 급한 나에게는 미국사람들이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잠깐씩 뒤를 돌아보며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사진 1) 필자가 머물렀던 JHU의 Ross 빌딩 10층에서 바라본 Baltimore 시내전경



사진 2) 가족과 함께 orlando가서 찍은 사진



## 2) SCMR 2009 를 다녀와서

**건국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고성민**

2009년 구정 다음날 필자는 연세대 최병욱. 김영진 선생님과 함께 SCMR 2009에 참석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이용해 애틀란타를 경유해 올랜도에 학회 전날 오후에 도착했다. 7개월 전 올랜도에서 열렸던 SCCT 2008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풍경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겨울이라 제법 날씨가 쌀쌀했다. 학회기간에 딱 맞추어 왔기에 디즈니랜드를 구경할 만한 여유는 없어 유니버설 스튜디오 주변의 위락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고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식사와 쇼핑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본 학회가 시작 되기 전 categorical course가 있어 필자는 1개월 전 350달러를 들여 physician pre-conference course를 등록하였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 학회에서 준비한 간단한 빵과 음료로 허기를 달래고 8시부터 강의를 들었다. 20분마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기초부터 비교적 최신의 주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강의를 따라가기에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너무 비쌌기에 눈을 부릅뜨고 들었다. 필자의 목표는 이번 학회를 통해 심장 MRI의 기초를 다지고 현재의 흐름을 파악해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건국대병원의 심장 MRI 영상의 질을 높이고 물론 판독의 질을 향상시켜 MRI검사의 활성화에 있었기에 어느 것 하나 놓칠 것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다. 하지만 너무 짤막하고 일부 강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강의를 듣자니 한편으로는 350달러의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본 학회는 기대했던 것보다도 많은 참석자들이 커다란 강의실을 가득 매웠다. Congestive heart failure 평가에 cardiac MRI의 적용은 나에게 왜 cardiac MRI를 어렵지만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준 시간이었고, 특히 책이나 저널에서만 접했던 유명 강사들의 강의는 듣는 본인으로서는 뿌듯하기까지 하였다. 학회에 이틀밖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심장 영상 전반에 대한 깊은 토의와 oral과 poster presentation이 있었는데 관심 있던 분야로는 valve imaging, nephrogenic systemic fibrosis, congenital heart disease, ischemic heart disease with perfusion and viability imaging, interventional cardiac MRI이었고, 특히 앞으로는 high field (3T) MRI를 이용한 심장 영상이 활발하게 이용될 것임을 보여주는 여러 강의와 논문 발표가 있었다. 한국인으로서는 유시준 선생님이 congenital heart disease에서 phase-contrast cardiac MRI를 이용한 cardiac shunt evaluation에 대한 강의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세계 속의 선생님의 현재 위상을 가늠할 수 있어 뿌듯했다. Coronary artery disease에 대한 강의가 학회 마지막 날 있어 듣지는 못했지만 임태환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니 흥미로웠다고 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 기억에 남는 시간으로는 필자, 최병욱, 김영진, 임태환 선생님 모두 4명이 유명하다는 이탈리아 식당에 가서 국내에서는 나누기 어려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떠나기 전날 우리 4명과 유시준 선생님, 그리고 같이 온 캐나다 소아과 의사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국제적으로 뻗어가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다. 기회가 된다면 유시준 선생님이 계시는 캐나다 토론토의 병원에 방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립스에서 주최한 만찬은 아주 럭셔리해서 아마 잊지 못할 것 같다. 돌고래 공원에서 각국의 의사들과 함께한 저녁은 국제 학회 참석의 커다란 즐거움이다. 두려워 말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짧은 학회에 오고 가느라 피곤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아주 의미 있는 학회이었다.  본인에게 심장 MRI가 가져다 준 두려움을 떨치게 해주었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면 편해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실제로 현재는 약간은 담대하게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기회를 준 건국대병원에 감사 드리고, 특히 나 갈수 용기를 주고 조언과 경제적 도움을 주신 최병욱 선생님께 감사 드린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심장에 관심을 가지고 학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고 본인과 같이 젊은 후배들에게 큰형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최병욱 선생님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심장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학회를 이끌어 오시고 지긋하신 나이에도 학문의 열정이 훨훨 타오르시는 임태환 선생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아마 이번 학회를 다녀오시고 난 후 여러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정이 부럽고 한편으로는 함께 일하고 있는 강준원 선생님이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가오는 SMR 2010에는 더 많은 심영회 회원들이 다녀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3) 선천성심장병 3-day seminar를 다녀와서

**경북의대 이종민**

달포쯤 전인가 연구실에 혼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뒤적이던 차에 전화가 울렸다. 별 성의 없는 태도로 무덤덤하게 전화를 받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 왔다. 필자가 전임강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로 입문한 심장방사선연구회 (현재의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의 핵심회원(core member)이었던 부천 세종병원 김양민 선생님의 전화였다. 그분과는 긴 시간의 인연에 비해 개인적 친분을 쌓을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시나브로 동지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2009년 14회를 맞이하는 선천성심장병 삼일연수 (영어로는 3-day seminar)에 와서 강의를 하라는 말씀이었다. 그 순간 다른 강의 요청과는 다른 묘한 기분이 스쳐 지나갔지만 학문적 선배의 말씀이라 그리하겠다고 동의하였다.

그 이후부터 필자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나름대로 선천성심장병에 관한 영상의학적 경험을 쌓아 왔지만 과연 초청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강의를 할 수 있을 지 걱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세미나는 병리과, 흉부외과, 소아과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인지라 흥미를 잃지 않게 강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힘든 자리에 서게 되어야 많은 준비를 하게 되고 많이 배우리라는 확신으로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왕지사 강의하러 갈 바에야 차라리 학생으로 등록하여 전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바로 등록도 해 두었다.

마침 세미나 전날 저녁에 서울에서 다른 볼일이 있어 당일 새벽에 전철을 타고 부천 세종병원으로 향하였다. 처음 가 보는 곳이어서 몇 번이고 위치를 확인하고서 무사히 도착했다. 입구를 들어서니 우리나라 최고의 선천성심장병 전문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왜소해 보였다. 그러나 내부는 역시 심장에 몰입하는 분위기가 팽만했다. 환자 대기실은 왜 그리도 복잡한지.. 이런 곳에서 일하면 다양한 증례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러웠다. MT 산행 길처럼 안내 쪽지를 찾으면서 지하 2층 세미나 장에 도착하였다. 세미나 장임을 알리는 접수 데스크와 플랭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참석 확인 후 명찰을 받아 패용하고 나니 정작 세미나에 다시 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실 수년 전 전임강사 시절에 이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다. 그 당시 심장방사선학이 주전공이었고 그 무렵에 선천성심장병에 관련된 판독업무도 겸하게 되었다. 소아심장 컨퍼런스에 참석하니 소아과와 흉부외과 교수님들이 3-day seminar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셨고 별 생각 없이 참석하게 되었었다. 그 당시에는 현재 서울대학교 영상의학과 이활교수님과 필자 둘만이 영상의학과 의사였고 나머지 수십 명은 임상의사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영상의학적 검사기법이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었다. 증례 발표 시간에는 할 수 없이 시험적으로 얻어 진 MRI 영상과 cardiac catheterization film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Vanguard라는 Cine film viewer를 구경만 하고 구동시켜 본 적이 없었던 관계로 무대 뒤에서 김양민 선생님께 사용법과 판독소견을 배워서 대충 발표해야 했었다. 그 당시에는 이 분야에서 과연 영상의학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들었고 3일 내내 주눅들어 무척 작아

진 느낌으로 세미나장을 나섰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지금은 영상의학 강의가 한 세션을 이루었고 필자는 그 중 한 강의를 위해 와 있고 동료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십 수명이나 참석 했다는 것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였다.

세미나는 짧은 코리안타임 후 시작되었고 오전에는 이론강의 오후에는 병리 샘플 실습 그리고 저녁에는 심장영상에 관한 강의로 이루어졌다. 이제는 강의 시간에 들리는 내용들이 생소하지 않았다. 그간 봐 오던 영사의학적 소견과 강의시간에 들리는 병리학적, 흉부외과적 소견들과 맞추어 이해하느라 머리 속은 나름 바빴다 (겉보기엔 졸고 있는 듯 했겠지만….). 오후 실습 시간에는 꽤나 익숙한 느낌으로 병리심장 샘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심지어 주제넘게 설명도 하곤 했다. 저녁 식사후 심장 에코에 대한 강의는 남의 집 창문 너머로 엿보는 기분으로 열심히 경청했다.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초음파에 이미 익숙한 터라 쉽게 이해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필자는 더 이상 10년전의 소심맨이 아니었다. 말수가 많아 졌다는 것만 봐도 그러했다. 즉 이제는 선천성심장병도 영상의학적 정보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 듯 해서 무척 우쭐했던 게다. 이번엔 즐거운 세미나였다.

세마나 둘째 날이 밝았다. 오전 강의를 듣고 점심시간에 심장병리연구회 집행부와 연자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소아과 선생님께서 필자에게 질문을 던지셨다.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병리나 외과적 공부를 너무 해야 해서 힘들지 않냐는 것이었다.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힘들면 다음날의 증례발표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셨다. 상당히 당황스런 질문이었다. 한참 맛있는 점심 도시락에 열중해 있던 시점에서 기습적 질문을 받은 필자는 입안의 맛있는 새우 느낌도 잊은 채로 얼떨결에 대답했다.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병원에서 소아심장 컨퍼런스 할 때마다 겪는 일인데요?” 라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질문을 던지셨던 소아과 선생님의 대답은 “아… 네….” 였다. 일단 새우를 꼴깍 하고 잠시 생각했다.

임상의들이 아직은 익숙지 않은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을 배려하려는 마음에 필자가 너무 무성의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닌지 걱정되었다. 그러나 곧 생각이 정리되었다. 물론 영상의학과 학회에서 만나는 강의 보다는 이해가 힘들지만 여기 모인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각 병원으로 돌아가면 선천성심장병의 진료에 참여해야 하거나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다. 그렇다면 과간 집담회 (interdisciplinary conference)에 익숙해 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는 본 세미나가 안성맞춤이었다. 기회를 봐서 이러한 생각을 부언하였고 모두가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표시해 주었다. 다행스럽고 고마웠다.

세미나 참가자 모두가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하였으며 마지막 날 오전의 증례발표는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공부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 필자이지만 이러한 광경은 무척 흥미롭고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에서 의자 깊숙이 몸을 싣고는 평온하게 생각에 빠져들었다. 이제는 영상의학과와 유관 임상과들이 담장을 허물고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질병도 각자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과거의 격리된 일터가 아니라 이제 모두가 모여 앉아 같이 일할 수 있는 아고라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동에 필수적인 것은 서로의 소통이다. 각자가 하는 각 분야의 표현을 이해하

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곳곳에서 일고 있는 협진의 분위기와 노력이 바벨탑의 최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 피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 4) 2월 고대구로병원 모임

항상 서울대병원 회의실에서 심영회 월례모임을 하던 것을 탈피하여 2009년도에는 여러 병원에서 다채로운 주제로 월례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처음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모임을 가졌었고, Dr Daisy Chien과 건국대 고성민 선생님의 MR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용환석 선생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맛있는 저녁식사 장소를 안내해주셔서 더욱 즐거운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정>

1) "New Frontiers in MR Cardiovascular Imaging" – Dr. Daisy Chien
2) "New trends, concepts, & technology of CMR from SCMR 2009" – 건국대 고성민
3) Interesting & Informative Cases

## <공지사항>

심영회원 여러분께

2009 년에도 회원 여러분에게 여러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객관적 학회 규모의 평가 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 1. 2009 년 회비 납부 (10 만원):

A. 하나은행: 192-910071-36107 예금주: 서재승 (jawoonjs@dreamwiz.com )

### 2. 회원정보 리뉴얼:

A. 직장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직위 변경있으신 회원은 아래양식에 기입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 | |
|---|---|
| 이름 |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 직장주소 | |
| 이메일 | |
| 전화번호 | |
| 핸드폰 | |
| 직위 | |

B. 대학의 신입강사가 있을 경우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 3. 3 월 정기모임 없습니다.

### 4. 심장학회 등록비 지원

A. 심장학회 학술대회 춘계, 추계

i. 초록발표자 (1 저자): 등록비 전액 지원

ii. 단순참가자: 등록비 3 만원 지원 (1 년 1 회)

B. 공통사항

i. 등록비 면제자 (강의 및 좌장): 지원 없음

ii. 중복 지원 안됨

iii. 사후지원 원칙 – 신청서와 영수증첨부 제출하고 통장으로 지급받음 (첨부파일)

참조

1. 회비납부 정회원 혜택

A. 심영회 기초연수강좌 (구 전공의 연수강좌) 등록비혜택 5 만원 1 만원

B. 심영회 실기연수강좌 (구 전문의 연수강좌) 등록비혜택 20 만원 1 만원

C. 심영회 학술대회 (9 월 12 일 광주) 회원등록비 1 만원, 숙박 보조

D. 한글교과서구매보조 (박재형 편 심장혈관영상의학) 85,000 45,000 보조 (1 인 1 권)

E. ASCI 학회 (Tokyo 6 월 5-6) 초록제출자 (공저자포함) 경비전액지원

F. 정기모임 (송년모임 포함) 식비, 회비 무료

G. 심장학회 보조 (초록제출자 전액, 단순참가자 1 년 1 회 3 만원)

H. 홈페이지 자료 검색 및 다운로드 권한부여

I. 지방회원: 정기모임 출석시 교통비 지급

J. Newsletter 및 심장관련 유용한 정보 지속 제공

K. 공저자 참여 통한 해외학회 참석 지원 강화

L. 미래 심영회 사업에서도 지속적인 혜택이 부여 될 예정임.

2. 대한심장학회 춘계학술대회

A. 4 월 17-18 일

B. 대구 엑스코

C. 심장초음파학회, 지질동맥경화학회, 혈관연구회국제심포지움 동시개최

D. 사전등록 마감: 3 월 13 일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E. 홈페이지http://circulation.or.kr/workshop/2009spring/location.html

F. 심영회 강사 참여: 김윤현 (전남대), 정정임 (가톨릭대), 박은아 (서울대)

## <심장혈관자기공명영상연구회 활동>

활동내역

1. 모임 3 회
2. CMR 실태조사
   A. 사용실적 저조
   B. 기본교육 부재
   C. 진입장벽
   D. Protocol 및 다양한 증례에 대한 요구

결정 사업내역

1. 대한심장혈관자기공명영상연구회

(Korean Society of Cardiovascular Imaging, KSCMR)으로 명칭을 공식화

2. 1 회 Symposium 계획
   A. 기본적인 CMR 교육
   B. 실기 중심 (protocol)
   C. 증례중심 토의
   D. 50-60 명으로 등록 제한
   E. 일방적 강의 보다 자유로운 질문, 토의
3. KSMRM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 (한개 Session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

## <임원진 소개>

영상의학회 위원회: 심영회에서 추천

- 학술위원회: 김태훈, 고성민, 최상일
- 고시위원회: 정정임
- 수련위원회: 이종민, 김성수
- 보험위원회: 추기석
- 의무위원회: 이헌

- 국제협력위원회: 김양민
- 정보위원회: 김동훈
- 품질관리위원회: 이배영, 서재승, 진공용, 도경현, 백상현, 구현우, 이창현 (심영, 흉영 추천)

2009-2010 새임원진 (임기 2년)

- 회장: 최연현 삼성서울병원
- 총무: 최병욱 세브란스병원
- 재무이사: 서재승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 학술이사: 김태훈 영동세브란스병원
- 학술간사: 최상일 서울대학교분당병원
- 편집이사: 이활 서울대학교병원
- 편집간사: 전민희 충북대학교병원
- 홍보이사: 고성민 건국대학교병원
- 홍보간사: 박은아 서울대학교병원
- 정보이사: 김동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정보간사: 최은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고시이사: 정정임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 고시간사: 최송 전남대학교병원
- 수련이사: 김성수 충남대학교병원
- 수련간사: 강준원 서울아산병원
- 가이드라인위원장: 용환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가이드라인 간사: 김영진 세브란스병원
- 감사: 이종민 경북대학교병원
- 무임소이사: 최규옥 세브란스병원
- 무임소이사: 박재형 서울대학교병원
- 무임소이사: 임태환 서울아산병원
- 무임소이사: 김양민 세종병원

## <2008년 시상 내역>

- 학술상: 전은주 서울대분당병원
- 신입회원 학술상: 채은진 서울아산병원
- 봉사상: 도경현 서울아산병원 (교육 및 고시)
- 봉사상: 김동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보, 홈페이지)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 <논문 출간>

1. Images in pediatric cardiology, Anomalous origin of the right pulmonary artery from the ascending aorta: 64-slice MDCT findings. Pediatr Cardiol. 2009;30(2):208-9 권세환, 오주형, 한미영, 김수철

2. Isolated left ventricular diverticulum in an adult: 64-slice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and echocardiography findings. Heart 2009;95:210 권세환, 오주형, 김우식

3. Multiple Giant Coronary Artery Aneurysms Due to Kawasaki Disease: Electrocardiogram-Gated 64-Slice Multidetector Row Computed Tomography Findings. Pediatr Cardiol (2009) 30:89–90. 권세환, 오주형, 한미영

* 심영회 회원들의 채택된 논문을 뉴스레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로 논문이 채택되신 심영회 회원들께서는 홍보이사 고성민 (ksm9723@yahoo.co.kr) 및 홍보간사 박은아 (iameuna1@gmail.com) 로 논문의 제목 및 저자, 저널명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df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편집후기>

2009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심영회를 이끌어갈 최연현 회장님과 최병욱 총무님께 감사 드리고 또한 다른 임원진께도 앞으로의 뜨거운 활동 기대합니다. 그 동안 홍보간사로 뉴스레터 제작에 수고하셨던 분당서울대병원의 전은주 회원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대병원의 박은아 회원이 새로운 홍보간사를 맡아 달라진 뉴스레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주 뉴스레터를 발간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회원님들의 근황과 학회의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정열적인 활동 기대합니다.